

◎ Ch'ing-liang ta Shun-tsung hsin yao fa môn.

# 清涼荅順宗心要法門

尹炳泰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司書)

筆者는 지난 5月 10日 勤務處인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司書課整理室에서 同僚인 申司書가 一次整理하여 넘긴 高麗版 및 嘉靖十年 松廣寺刊「清涼荅順宗心要法門」이라는 小冊子를 마즈막 整理 校閱하던中 高麗版의 가장 끝에 있는 跋 一面이 活字의 特性을 가졌음으로 이를 究明하여 確認可能한 現存本中 最古의 高麗活字本을 確認하기에 이르렀든 것이다.

이 책은 크기가 세로 21.3cm 가로가 13.3cm 두께가 4mm인 작은 冊子 1冊이며 裝幀은 藍色表紙에 四孔으로서 蝴蝶裝으로 改裝되어 있으나 元來는 韓國 特有의 五孔으로 綴한 자욱이 남아 있다.

이 책의 總張數는 5張이며 每張 이를 다시 四分으로 접어 全部 20面이다. 版틀의 邊欄은 上左單邊, 下右雙邊으로 匡廓은 上下의 高가 17.5cm 左右의 幅이 45.7cm이며 無界로 30行이고 行間의 字數는 本文에서는 헤아리기 힘들나 마즈막의 跋 二種은 모두 16字씩이다.

이 冊 第1張에는 「清涼荅順宗問」이라는 題目이 붙어 있는 人物畫가 있는데 清涼和尚으로 짐작되는 人物이 法床위에 높이 앉아 있고, 左右에 侍童(上座?)이 있으며, 順宗으로 짐작되는 人物이 두 臣下를 거느리고 合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 그림의 넓이는 第1張全張의 約八分之三이다.

다음 下端에서 부터 「清涼荅順宗心要法門」이라는 書名이 陰刻되어 있으며, 그 다음 줄에 「主峯蘭若沙門宗密注」·「定光山延聖度生寺沙門智嚴科」라는 著作者 表示가 있다.

本文은 上段에 智嚴의 科가 陽刻으로 되어 있고, 下段에 澄觀의 答이 陰刻으로 되어 있으며, 그 사이사이에 宗密의 注가 陽刻으로 되어 있다.

科와 科사이, 또 科와 答사이에는 곳곳에 聯關된 語句間에 線으로 連結됨이 表示되어 있다. 이러한 本文이 第1張(第2面半)에서 始作하여 第5張(第18面)에서 끝났다. 本文의 末尾에도 역시 「清涼荅順宗心要法門」이라고 卷末題가 陰刻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原刊本의 跋 一面이 陰刻되어 있고, 高麗版의 刊行跋 一面이 陽刻으로 되어 있다. 이 마지막 高麗版 刊行跋 한 張이 活字本 究明의 실마리가 되었다.

이 冊의 內容은 唐나라 順宗(805在位)이 唯心에 對해 當時의 鎮國國師인 清涼和尚澄觀에게 問하고, 國師가 答한 것을 要約한 것으로 이를 定惠禪師 宗密이 箋注하고 다시 이를 惠達國師智嚴이 科判한 것으로 그 原本은 宋 또는 遼에서 刊行되었거니와 이것은 陰刻으로 된 原本刊行跋에 쓰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原本刊行跋의 文末에 日字가 없으니 그 刊行時期는 알 수가 없다.

參考로 “唯心”의 뜻을 “불교사전”에서 찾아 要約하면 “宇宙의 終局의 實在는 마음(心)뿐으로서 外界의 事物은 마음의 變現”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다.

澄觀 宗密 智嚴 세분 스님의 傳記는 “불교사전”이나 “望月佛教大事典”에 있으므로 省略한다.

그런데 이 책에는 아래와 같은 問題點이 있다. 그리고 이 問題點은 記者들에게 “記事資料”上에 分明히 지적하여 提供되었든 것이다.

첫째 이 책이 刊行된 年度는 推定에 의한 것이라는 點이다.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略稱「直指心經」)이 1377年이라는 分明한 印出年紀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이 心要法門에는 그 刊行年度를 推定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內容이 실린 刊行跋이 紙質은 같지만 따로이 종이에 찍혀 작두로 깨끗이 오려져 붙어있을 뿐이다. 參考로 앞 二行을 省略한 全文을 실는다.

順宗問而清涼荅圭峯註而惠達科遂成一卷之書總括此心之要中奉大夫崇福使別不花夙彰善本日覽微言抽施餘資刊行妙典上祝

위 글 중에서 荅(答) 鏡(鏡) 惠(惠) 科(科) 總(總) 以(以) 中(中)의 글字와 “本”字를 “大”字 아래 “十”字한것 등은 典型的인 王羲之의 筆體이다. 이 중에서 “中”字는 缺劃이 되어 있음에 特別 留意할 必要가 있다

(圖版과 比較하기 바란다)

高麗版의 刊行年代를 推定할 수 있는 語句는 오직 “中(中)奉大夫崇福使別不花” 뿐이다. 이것을 究明하는데 있어 初心者는 李弘植博士의 國史大事典, 高麗史, 元史, 新元史, 韓國史年表, 朝鮮史 第三編의 高麗史部分, 韓國人名事典, アジア歴史事典, 東洋歴史大事典, 諸橋漢和大辭典, 蒙古語辭典, 그리고 高麗史索引, 元史語彙集成, 韓國人物年表·羅麗文籍誌·羅麗藝文志에 나오는 文獻들과 東洋史料集成에 紹介된 元代의 基本史料들을 涉獵할것은 꼭 必要한 일이다.

이러한 文獻을 調査하다 보면 中(中)奉大夫는 高麗史에서는 忠烈王 1년부터 24년사이 (1275~1298)에 있던 “正三品 文散階”職이며, 元史·新元史에서는 “文散官四十二階”中 中奉大夫는 “從二品職”이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편 崇福使는 元史나 新元史에 “崇福司秩(從)二品 掌領馬兒哈普列班也里可溫十字寺祭享等事使四員從二品 同知二員從三品…至元二十六年置延祐二年改爲院置領院事一員省併天下也里可溫掌教七十二所…”라고 나타나 있는 崇福司의 使四員中의 一員임이 分明하다. 이는 至元二十六年(高麗忠烈王 15年, 1289)부터 延祐二年(高麗忠肅王 2年, 1315, 忠宣王 生存時)사이에 있던 機關이다.

高麗史에는 이 崇福使가 있었다는 分明한 記錄은 없다. 다만 崇福都監이라는 機關이 恭愍王때 設置되었다가 禡王때 없어졌다. 그런데도 高麗史三十三 世家三十三 第11張 A面 5行에 忠宣王 最初即位年(1298)의 記事로 “閔宗儒爲銓曹尚書崇福館使”라는 記錄이 나온다. 高麗史百官志에 없는 官職名이 世家의 記事로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忠烈王이 元나라의 官職制度를 模倣할때 設置되었을 可能性이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남은 것은 別不花인데 이 사람은 元나라 사람으로서 忠宣王이 燕京에서 武宗을 雍立할때에 함께 힘쓰는 사람으로 그때 벼슬이 院使라는 것이 高麗史三十三 世家三十三 第17張 A面第1行에 記錄되어 있으니 이때가 忠烈王 33年(1307)의 일이다. 그런데 元史卷二十二 “本紀第二十二 武宗一” 第9張 A面第9行에 “己卯以集賢院使 別不花爲中書平章政事”라는 記事가 있다. 이때는 元武宗即位年(高麗忠烈王 33年, 1307)이니 記事內容이 두 쪽 모두 符合된다.

한편 別不花가 高麗에 歸化한 蒙古人일수도 있겠으나 이는 文獻의 記錄이 전혀 없어 困難하고, 高麗人이라는 것은 可能性은 있다. 그것은 이 當時高麗의 國習이 元을 거의 模倣할때이므로 심지어는 임금도 益智禮 普化라 하였고, 高麗史에도 不花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많이 있었으며 元史에는 朴不花라는 宦官 얘기가

列傳에 別項으로 나와 있기도하다.

이 이름은 蒙古에서는 原音이 “베부하”로서 別不花조차도 “拜布哈”라는 譯字가 따로 있을 程度며, 不花는 puča의 譯字로서 布哈, 普化, 不華, 普華, 朴花, 等等 많은 이름이 元史나 高麗史에 실려 있다.

그러나 別不花를 高麗人이라고 確定할 수 있는 史料가 없다. 그러니 처음 말한 元人의 說을 좇을 수 밖에 없다.

以上 列舉한 事實을 볼때 中(中)奉大夫崇福使가 있을 수 있는 期間은 1265~1315間이며, 別不花가 中奉大夫일수 있는 마지막 時期는 1307年을 훨씬 거슬러 올라갈것이며, 忠宣王과 別不花가 가까운 사이라고 볼때 忠宣王의 母后인 齊國大長公主가 돌아가서 忠烈王23年(1297)6月 高麗에 돌아와서 10월에 元에간 사이나, 忠烈王 24年(1298年) 正月에 元에서 돌아와 最初로 即位하고 八月에 退位되어 元나라로 다시 갔을 그 사이의 中 한번은 高麗를 다녀갈수 있는 可能性은 있는 것이다.

別不花의 職階昇進의 速度로 豫想하거나, 崇福使라는 職責이 가르켜주드시 別不花가 元帝의 姑母의 冥福을 빌거나 元帝의 姑從의 高麗王 就任을 祝福한다는것은 能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推定인 것이며 別不花가 다녀갔다든가 안다녀갔다든가하는 正史나 文獻의 記錄이 남아 있지 않는 것이 問題點인 것이다.

그러면 어디서 刊行되었는가 或者는 本文은 元나라에서 刊行하고 跋文은 高麗에서 붙였다는 說을 세우나 그것은 成立이 안된다. 元에서 했다면 처음부터 깨끗이 木板으로나 銅版으로 했을 것이고, 다음에 論하드시 複雜하게 木板(?)木活字(?) 銅版(?) 金屬活字등을 混用한 印刷方式을 擇하지 않았을 것이다.

板木은 오랜 時日동안 乾燥해야만 하고, 많은 部數를 적을때나 쓰는 方法이며, 그때 이미 活字의 效用을 능히 알고 있을 高麗人의 슬기에는 구태여 木板을 使用치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이 冊을 적은 時期的인 면을 考察할때 別不花가 元나라 사람이 分明하든 알든間에, 忠宣王과 關係지어 볼때 그 下限은 아무리해도 1297~1298年사이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論하는 活字本의 問題만 解決하면 現存 有刊記 最古本인 直指心經보다 79~80年前에 刊行한 冊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金屬活字로 印刷된 冊으로나 銅版(?)으로 印刷된 冊이거나 (陰刻한 一部分이라도 좋으니) 木活字(?)로 印刷된 冊이거나간에 世界最古의 活字本이 될수밖에 없다.

두번째로 問題가 되는 것은 이 冊의 刊行形式이 特異하므로 생기는 問題이다.

이 冊의 첫머리에 銅版(?)으로된 人物畫가 있고, 本文에서 第1~4張은 上段에 木板 또는 木活字(?)가 混用되어 있고, 下端에는 陰刻된 銅版(?) 또는 木板에다 陽刻된 木活字(?) 또는 木板이 混用되어 있으며, 第4張째는 本文 上段에는 金屬活字, 下端에는 銅版(?)의 陰刻과 陽刻으로된 金屬活字가 全部 植字되어 있는 反面 木活字가 間或 섞여 있는 것과 銅版(?)의 陰刻으로된 原本刊行跋 그리고 完全히 金屬活字로 따로 올려붙인 高麗版刊行跋等을 組版한 것은 高麗活版印刷術의 精髓를 모아놓은것 같다.

그러면 왜 이러한 樣式의 組版을 했을까 첫째 적은 量을 적었을것, 둘째 時間的으로 急히 서둘렀을것, 셋째 이當時에는 木活字 및 金屬活字를 混用하고 있었던것 等等을 豫想할 수가 있다.

이때는 高麗大藏經의 彫成이이미 끝났고, 續藏經도 木板 또는 木活字 (특히 釋苑詞林·円教六即義·開四分律宗記義鏡鈔 등)로 이루어졌고, 釋氏要覽이 木活字에 金屬活字로 混用되어 刊行되었고 (現在 이 冊은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六堂文庫에 있다) 山谷詩註가 高麗木活字 또는 金屬活字說이 있으며, 1377년에 刊行된 直指心經에도 더러 木活字가 混用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當時의 木活字 및 金屬活字의 混用은 可能한 것이다.

셋째로 가장 重要한 것은 앞의 둘째 問題와 連關되는 것으로 마지막 1面 即 第5張의 1面은 金屬活字를 붙여주는 사람이면 肉眼으로도 鑑別할 수 있는 金屬活字印刷物이다.

木板本·木活字本·金屬活字本·銅版本の 識別方法을 論하지는 않겠다(東亞日報 5月 26日字參照) 다만 이 發表結果는 적어도 寫眞으로 100倍 以上 擴大하여 나온 結果이며 筆者는 孫寶基博士의 方法을 敎示받아 施行해서 이루어진것임을 밝혀둘 뿐이다.

그러면 이 冊이 갖는 價値는 무엇인가? 이 冊은 現存 最古의 活字本이다. 이 冊이 나타남으로서 東國李相國集의 記錄이나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記錄이 틀림 없다는 證據가 나온 셈이다.

그러나 이 最古라는 位置도 固定的일 속는 없다. 直指心經이 最古의 金屬活字本이라고 新聞에서 大書 特筆하고 있을 때 우리 나라의 書誌學者들은 그보다 앞선

活字本이 存在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 (某圖書館에서는 十七史纂古今通要가 現存最古라고 發表되었지만)

우리들 祖上인 百濟나 新羅時代 사람들이 日本에 건너가서 百萬塔陀羅尼라는 木活字(?) 印刷物(冊이 아닌)을 남겨놓았다면, 우리 나라에도 祖上들이 이룩해 놓은 木活字나 金屬活字 印刷物은 또 찾아낼 希望은 있을 수 있다. 나아가서는 1101년에 書籍舖를 두었고, 1102년에 海東通寶를 鑄造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最古의 金屬活字는 아직 未解決인 것이다.

끝으로 이 冊과 同一한 冊이 아닐까 하는 高麗版1帖이 日本天理圖書館 今西文庫에 收藏되어 있다. 現在 交信中이므로 그 回答에 의해 곧 判明될 것이다.

이보다 뒤에 나온 轉寫刊行한 木板本 1帖이 國立中央圖書館에 收藏되어 있다. 이 冊은 高麗版과 對照次 갔다가 筆者가 藏書主任인 張在洪씨와 直接 一般書庫에 들어가서 索出(所謂發見)한 것으로서 筆者가 檢討한바로는 世宗~成宗間의 宮中版으로서 嘉靖版의 祖本임이 틀림없다.

이 國立中央圖書館本の 覆刻으로된 中宗 26年(1531) 順天松廣寺刊本이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에 一部가 있으며, 이 高麗大本과 刊記가 같지만 이를 또 改刻한 木板本 1帖이 國立中央圖書館 貴重書에 있다. 이 國立의 貴重書인 木板本の 後刷3張이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六堂文庫本 宗鏡撮要末尾에 붙어 있다. 이러한 朝鮮時代의 木板本들은 書名이 淸涼(涼이아님)峇順宗心要法門이다.

以上은 筆者가 新聞記者들에 提供한 「記事資料」에 立脚하여 作成한 것임을 附言한다. 特히 朝鮮日報의 記事와 對照하기 바란다.

筆者가 이 冊을 確認하기까지 “착궁”인 申司書의 도움이 많았음을 明記하고 싶다. 그 외에도 直接 確認에 協力하여 주신 安春根先生 千惠鳳敎授 姜周鎭博士 李謙魯先生, 그리고 孫寶基博士에게는 뜨거운 感謝를 드린다. 이 밖에도 積極 後援하여 주신 李春裁司書課長, 圖書館長, 李秘書室長, 發表를 許諾하신 總長님, 寫眞 撮影에 힘쓰신 尹世英主任께 紙上을 통해 感謝를 올리는 바이다. (1973. 6. 5)

**편지는 규격봉서로**

**규격봉서란 ?**

1.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2. 우편번호를 올바르게 기재한 것으로서
3. 중량 50그램이내의 것입니다.

**규격봉서의 예**

